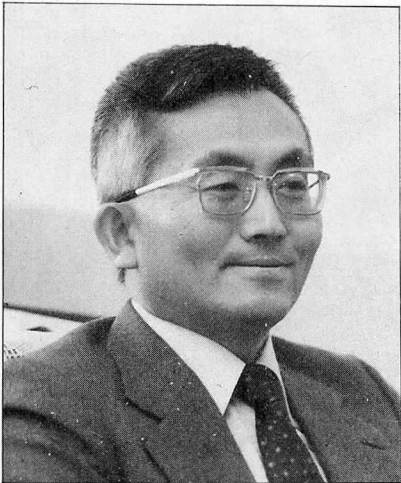


# 우리나라 科學出版의 현실

## ‘풍요속의 빈곤’... 그 문제점을 따진다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교수·과학사



朴星來 교수

과학책을 읽을 독자가 없다는 것은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면서도, 정작 과학기술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학출판에는 무관심하다.  
과학출판은 곧 국민 전체의  
과학문화를 반영한다.  
과학문화의 향상 없이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란 헛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없지는 않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제법 빠른 속도로 늘어 가고 있어서, 과학기술에서도 아마 선진국의 문턱이 멀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도 된다. 더구나 요즘은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후보자들마다 어찌나 그럴싸한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지 모두의 마음이 등실등실 떠있는 기분이기도 한 것 같다.

### 순수과학 도서는 연간 겨우 309종

그러나 이처럼 많은 한국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선진조국’의 꿈 저 아래에는 턱없이 천대받는 분야가 없지 않다. 물론 그런 분야가 꼭 하나 둘 헤아릴 정도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박대받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과학출판인 것만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만큼 과학기술 관계의 출판활동은 이 땅에서 가장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과학기술 연구소가 세워지고, 과학고등학교가 지방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이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되고, 이공계 대학이 얼마든지 늘려 있게 되었지만, 과학책은 절대 부족이고, 과학잡지는 안팔리며, 과학기사는 별로 실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학출판은 과학을 다룬 단행본이나 잡지 뿐만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히면 과학기사를

실은 정기간행물까지도 포함시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과학출판은 저조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한해 동안의 출판물 통계를 살펴보자. 1986년도의 도서발행종수는 모두 37,411종이었는데, 이 가운데 순수과학도서는 겨우 543종에 지나지 않는다. 12가지로 분류한 통계에서 순수과학의 출판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기술과학으로 분류된 것이 2,561종을 차지하고 있어서 함께 따지면 과학책이 적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들 가운데 국가의 과학수준을 보여주는 진정한 과학출판은 ‘순수과학’으로 분류된 책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 뿐이다. 이들 543종의 책 가운데 상당수는 교과서이거나 순수과학의 어느 전문분야를 다룬 책인 수가 있어서 국민의 과학수준을 꼭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이 가운데 234종은 중판이어서, 완전한 신간서는 겨우 309종에 불과하다. 1986년 동안에 출판된 신간 22,132종 가운데 309종만이 순수과학 서적인 것이다.

### 독자도, 필자도, 읽을거리도 없다.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의 출판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년간 도서의 발행부수는 2배로 성장했고, 그 발행종수도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순수과학’의 발행종수는 해마다 별로 변화가 없

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 분야의 책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웅변해 주고 있다. 과학잡지의 경우도 침체는 마찬가지이다. 대중과학잡지로는 지금 ‘사이언스’ ‘과학’ ‘동아과학’ 등이 간행되고 있고, ‘학생과학’이 꾸준히 소년층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과학잡지는 어느 것이나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명맥의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창간 6주년을 지난 주에 맞은 ‘주간과학’ 역시 형편은 비슷한 정도인 것 같다. 그 밖에 일반의 신문이나 잡지들은 예나 이제나 똑같이 과학기사에는 인색하다. 외국의 시사주간지가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걸표지에까지 특집이라 소개해 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언론은 과학기술의 문제에 거의 무관심이다.

우리 과학출판이 이토록 어려운 상태에 머물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선 독자가 없다는 것이다. 순수과학 책을 읽어 보려는 사람은 결코 많을 수가 없다. 책을 찾는 독자가 없고 보면 자연히 그 방면의 책은 만들어지지 않게 마련이다. 책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과학이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사은 읽을 만한 책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어느 분야 책보다도 과학책은 그 수준이 떨어진다. 거의 날마다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과학 분야는 보기에 따라서는 인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할 수도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주

研究室에서, 學校에서, 現場에서 最大の 寶庫!!  
電子通信時代に 부응한 最高, 最大の 良書出版!!

# 電子通信工學大系

(全15卷)

- |       |      |           |            |              |        |         |            |            |     |       |            |            |          |               |
|-------|------|-----------|------------|--------------|--------|---------|------------|------------|-----|-------|------------|------------|----------|---------------|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2          | 3        | 1             |
| 시스템應用 | 計測制御 | 画像通信·端末機器 | 無線傳送·데이터通信 | 傳送理論·線路·有線傳送 | 通信網·交換 | 音·画像·人間 | 光·電波Ⅱ      | 光·電波Ⅰ      | 컴퓨터 | 材料·部品 | 디바이스·回路Ⅱ   | 디바이스·回路Ⅰ   | 情報·시스템理論 | 基本測定 및 回路制御理論 |
| 김명기   | 김조중  | 이현재       | 이영규        | 이영규          | 우순술    | 오영환     | 이충용<br>김민호 | 송재규<br>조성준 | 이태원 | 김봉열   | 이정환<br>장인수 | 이종악<br>김환용 | 한영열      | 우관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6가 257  
전화... 92317822, 9416312

圖書出版 技多利

머니이고, 따라서 많은 흥미있는 책이 나올 법도 하건만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과학책은 나오는 일조차 드물지만 간혹 발행되는 과학책은 대개 외국 것의 번역인 경우가 많고, 번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음이 과학출판의 저조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많은 과학자·기술자가 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했고, 여러 연구소가 세워졌으며 국내의 과학기술 교육에도 적지 않은 투자가 있었지만, 막상 우리 과학에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에는 거의 투자를 한 일이 없을 지경이고, 특히 과학출판에는 단 한 푼도 과학기술 예산을 쓴 일이 없다.

지금처럼 과학책을 읽는 독자가 없다는 것 역이건 아니건 어렵고 요령부득인 작품이 대부분이다. 한 마디로 한국에는 과학을 내용으로 책을 쓸 수 있는 필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좋은 필자가 없다면 좋은 책을 기대하기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

### 과학출판물 둘러싼 악순환

과학을 다룰 좋은 필자라면 아무래도 보통 이상의 교육을 받고 상당한 연구를 해본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자의 대우가 좋아지면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태여 글 쓰는 피로운 일에 종사하려 하기보다는 연구에 종사하기를 원할 것이다. 출판사

나 잡지사에서는 좋은 필진을 얻기가 아주 어렵다. 좋은 필자가 없으니 좋은 책이 나올 까닭이 없다. 좋은 책이 없으니 독자가 많을 리가 없고, 독자가 많지 않으니 출판사는 과학책의 필자에게 좋은 대우를 할 수가 없다. 대우가 시원치 않으니 좋은 필자가 나올 리가 없다. 밑도 끝도 없는 악순환이다.

과학출판이 안고 있는 이 악순환을 깨는 작업은 이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간섭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다. 과학기술치는 이를 위해 나라돈을 쓸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과학진흥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그중 일부를 과학 출판에 할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그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까지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과학 기술도 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니 그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란 우리 한국문화가 만들어 낸 자생적 작품이 아니라 서양문명이 낳은 외래문화인 셈이다.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인의 과학수준을 높이는 의식적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역사발전의 단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과학출판이야말로 바로 이런 노력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런 노력에 정부의 투자가 우선 필요한 이유는 과학출판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는데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

의 진흥을 위해 문예진흥원이 원고료 보조를 하듯이, 과학 출판에 대해서는 '과학진흥원'을 만들어서라도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중을 위한 과학 단행본이나 잡지와 신문의 기사에 대해 외부보조가 있지 않아서는 지금과 같은 과학출판의 부진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과학기술 자체의 연구개발 투자에 비한다면 극히 작은 투자만으로도 과학출판 분야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더 자신있게 책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잡지는 잡지대로 더 좋은 글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과학문화' 전체가 향상돼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소위 일반 대중을 위한 교양잡지는 과학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사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학이란 문화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니 문화의 일부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일부 전문가의 문화인 양 치부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민학교에서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리도 많은 시간을 과학교육에 소비했는데도, 또 대학교육의 반 이상이 소위 '이과'라 하여 과학 쪽이라 할 수 있는데도 과학출판이 이 지경이라는 사실은 한국문화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투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과학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과학이 한국사회에서 유리된 채 '따로 노는' 원인은, 과학이 너무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대중과 떨어지면서 그것을 대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의 인력양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데에 가장 근원적 잘못이 있다. 과학과 대중을 다리 놓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출판인의 과학에 대한 소양을 높이는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과학출판에 알맞는 인재의 양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미세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공교육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의 폭넓은 공부를 장려하는 대학의 학과가 생겨나야 가능할 것이다. 과학사·과학사회학 등 과학을 종합적인 안목에서 보려는 학문 분야가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학출판의 현실은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우리의 과학이 선진국을 향한 행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과학문화를 이대로 방치한 채 연구소만 늘리고 과학자·기술자만 기른다고 우리 과학수준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학출판은 곧 국민 전체의 과학문화를 나타내 준다. 그리고 과학문화 전체의 향상 없이는 과학기술의 선진화란 헛소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 도와드립니다

경험과 정보가 곧 돈입니다. 출판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때 마다 거액의 경비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출판인으로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제반 실무지식과 정보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 업무분야

- 편집분야 — 출판기획 · 필자소개 · 원고생산 · 레이아웃 · 대지작업 · 교정
- 디자인분야 — Book-cover Design · Illust · 광고기획 · Logo 제작
- 인력분야 — 필자 · 편집인 · 디자이너 · 영업간부 · 성우 · 미국인 소개
- 제작분야 — 제작방법 및 제작처 선정 · 식자 · 제판 · 인쇄 · 제본 · 원가계산 · 종이구입 · 음성교재제작
- 판매분야 — 참고서 · 단행본 · 잡지 · 전집류 · 카세트 등 상품별로 전국 총판정보제공 · 총판관리 및 직거래 실무

## 찾습니다

현 직장에 그대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일감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판편집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2년이상 되고 타회사의 새로운 일들을 추가로 맡아 해나갈 여력이 있는 남녀 Idea Person을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 아 래

- 모집분야 — Editorial/Book-cover Design · Page Layout · Illust · 광고기획 · Logo 제작 · 사보편집 · 대지 및 수정작업
- 응모요령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통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면접일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작품카피와 작품소개도 첨부 바랍니다.

능률영어사부설

**한국출판서비스센터**  
Korea Book Publishing Services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1 근신빌딩 515호 ☎ 701-4756~7